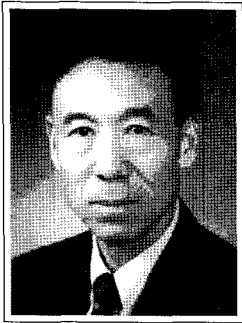




“사막에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이 창 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감사 · ‘원자력 1세대’



새해 벽두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찾은 이유

지난 새해 벽두 나는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찾아 우리가 지난 11월엔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12월엔 UAE에 발전로 4기를 수출하게 되었음을 신고했다.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원자력 씨앗을 뿌리며 첫 단추를 잘 끼워줬기 때문에 50년만에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것이다.

돌 단 위에 「400억 달러 한국原電 UAE 수출」 제목과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UAE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이 실린 지난 12월 27일자 조선일보와 「연구용원자로 50년 역사 첫 요르단 수출」 제목의 원자력신문을 올려 놓았다.

‘당신께서 잉여농산물을 얻어다가 굶주린 백성을 먹여 살리고 무기 도입과 군사 원조를 더 받아 내려고 미국에게 저자세 떳게 외교를 해야 했으나 당신의 후배 대통령은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그 밖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조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입니다. 또 외국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우리가 이제는 수혜국에서 세계 최초로 남을 돕는 원조국 신분으로 탈바꿈했으니 기뻐하십시오. ……’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도 그 신문을 올려놓고 당신께서 중단 없는 전진으로 원자력 묘목에 거름과 물을 주며 잘 가꾸고 과학기술자 얘기에 귀를 기울인 탓에 증동 사막에 무궁화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여쭙는다.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후 거리엔 상이군인, 고아, 과부, 거지와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복구되지 못한 건물과 공장이 수도룩했는데도 이 대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동 대학원 공학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근무
(1959~1996)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강사
(1961~1981)

조선, 동아, 중앙 등 일간지 및 영자지 고정 필자
원자력위원, 국제원자력학회 협의회 회장 역임



통령은 처음 10년간 270여명의 훈련생을 해외에 파견해 오늘의 원자력 기초를 닦게 했다. 이처럼 그는 원자력에의 선택과 집중 정책을 잘 해낸 장본인이다.

한국 최초로 발전로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는 뜨거운 논쟁을 벌였고 또 많이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영국은 이태리와 일본에 이미 가스냉각로를 수출하여 국제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 거기에 보조 시설과 부품들을 유럽에서 구매할 예정이어서 여러 명의 유럽 대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스냉각로의 우수성을 선전했다. 또 이스라엘 기업인이 원전 건설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 하여 이스라엘 대사로 영국 진영에 합세했다.

그러자 정부는 영국에서 가스냉각로 기술을 습득했고 미국에선 경수로 기술도 익힌 한국전력의 김종주 기술이사에게 발전로에 대한 기술 평가를 의뢰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 후 가스냉각로보다는 경수로가, 경수로 중에선 가압수형 원자로(PWR)가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장래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그 평가서를 박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대통령은 기술자의 평가대로 PWR 노형을 선정하자고 했다. 이것은 그때 대통령이 기술인의 능력과 판단을 존중했음을 말해준다.

위의 두 대통령이 정치적 철권을 휘둘렀을 때 나는 늘 반대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나 경제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는 생각에 이번에 그들의 묘소를 찾은 것이다.

“기술 자립에 실패하면 태평양에 몸 던질 각오를 해야”

나는 그간 묵묵히 일하며 최선을 다해온 원자력 동료·선배들과 원전 핵심 기술 전수에 협조해 준 컴버스턴 엔지니어링(C-E)사의 부사장 쉘비 부루어 박사와 매찌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그때 부루어 박사는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원전 하나도 건설하지 못했고 앞으로 20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그럴 바엔 자기네 모든 기술 자료를 퍼놓고 함께 기술 개발에 힘써 세계 시장에 나가자고 해 영광원전 사업을 낙찰 받았다. 그는 우리 원전 사업 업적으로 그 후 사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며 친한파가 되었다.

원자력연구소는 C-E와 10년간의 기술 전수 계약 하에 최대 130명의 연구원을 C-E에 보내 핵심 기술 습득에 나섰는데, 그 일을 가능토록 뒷바라지해준 분이 당시 에너토피아 건설을 부르짖으며 독려한 원자력연구소 이사장인 한국전력 박정기 사장이었다.

C-E로 떠나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소 한 소장은 기술 자립에 실패하면 태평양에 몸 던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실제로 연구소에서 밤낮없이 그 일에 매진하던 서경수 박사가 운명을 달리해 우리를 비통케 했고 연구소는 그의 흉상을 소내에 건립했다. 그의 영전에 이번의 쾌거를 삼가 보고 드린다. 기술 자립에 전력투구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권이 침해당하는 정상배 패거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 입는 일이 종종 있다. 이 나라 최초로 자동차 국산화 기치를 높이 들었던 상공부의 함인용 차관보는 그래서 쫓겨났고, 전화자동교환기(TDX) 국산화에 올인하던 체신부의 최순달 장관도 하마터면 봉변당할 뻔 했고 ‘에너토피아’를 내걸고 원자력 기술 자립에 힘썼던 박정기씨도 같은 경우였다.

프랑스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지’ 협박

30년 전 후속기인 울진 1, 2호기 결정에 앞서 현경호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이 파리에 갔을 때 프랑스 원자력장관 측에서 우리를 만찬에 초대했다. 유럽에서 공부한 선배는 그날의 요리와 포도주가 최상급이라고 했으나 나는 음식의 고급·저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차이 밖에 모르는 촌놈이어서 식탁에서는 별로 감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최고로 농축된 내용을 우리에게 통보한 프랑스 대표의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백만\$이나 드는 한국 원전 사업 입찰에 매번 참가하며 수많은 기술 인력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리 원전의 설비, 기술, 안전성, 경제성, 운전의 편의성은 세계 최고인데도 한국은 우리를 미국 회사의 들러리로 이용만 해왔다. 이번에도 들러리 취급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 만일 또 그랬다면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UAE 대통령

취할 수밖에 없다...그것은 유엔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20여개국을 묶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할 것이라던 조치이며 이것은 우리 외무성, 산업성,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내린 비장한 결의이니 당신네들은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이 말에 우리는 후식에도 포도주에도 더 이상 입을 대지 못했다.

이 급박한 보고를 받은 정부는 국무총리를 파리에 보내 이번엔 프랑스 회사를 특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그 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성사된 것이 울진 1, 2호기였다. 대한항공이 프랑스에서 Airbus 몇 대를 도입키로 한 것도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테니스 시합으로 결판난 한·불 공동합의문

울진 1, 2호기가 결정되자 프랑스는 기술진 레벨의 원자력 기술 협력 방안의 하나로 한-불 원자력 학술 회의의 매년 개최와 원자력계 인사들의 상호 교차 방문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미래의 한국 원자력 시스템을 자기네 우산 아래 묶어 놓으려는 생각에서였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화로 해 그들의 선진 기술을 빨리 싸고 쉽게 많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즉 양측 모두 Win-Win하며 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그 일이 성사되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대표단이 첫 번째로 내한하여 우리 원전, 창원의 중기 생산 시설, 대덕의 연구소 등을 돌아

본 후 서울의 원자력연구소에서 합의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우리도 나름의 초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 서로의 안을 갖고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 대표단은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입씨름했는데 아무리 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프랑스대표가 기발한 Idea를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간 한 달이 지나도 우리가 귀국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양측 수석대표가 테니스 시합을 해 이기는 쪽의 안을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는 별도로 모여 프랑스 대표와의 테니스 시합에 응하기로 합의했는데 내가 그것을 수락한 것은 Mr. Graff의 배가 임신 6개월 정도로 볼 만큼 볼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거구의 발에 맞는 운동화가 없어 야단이었다. 몇 군데의 신발 가게와 운동구점에 사람을 보내 가장 큰 것을 사왔는데도 그의 발엔 맞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발이 제일 큰 김영국 박사의 운동화에 구멍을 뚫어 그의 발을 쑤셔 넣어 보았다. 엄지 발가락 위에 구멍을 크게 냈더니 발이 간신히 들어간 것이다.

Graff 원자력국장과 나는 프랑스 대표단과 대사관 직원 등 10명과 연구소 직원 100여명이 보는 앞에서 한-불 테니스 시합을 했다. 과연 그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저택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정식 코치 밑에서 기초를 잘 닦은 경력자답게 기본기가 튼튼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엔 밀렸다.



그러나 거구인 그가 발이 아파 나중엔 뛰지 못한 탓에 나는 간신히 이겨 박수를 받았다. 운동화를 벗기니 그의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었는데 잔인하게도 우리 직원이 그에게 한국 측이 작성한 합의문에 서명하라며 문안과 Pen을 내놓았다. 나도 거기에 서명했다.

다음해의 교차 방문 때 나는 구멍 뚫린 운동화를 갖고 프랑스에 가 Graff씨에게 그것을 신고 다시 시합하자고 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자기 운동화를 신고 자기네 코트에서 프랑스 관중이 보는 앞에서 거행한 두 번째 시합에서 또 내가 이긴 건 그 1년간 체력 단련과 기술 향상을 위해 정말 열심히 테니스를 쳤기 때문이다.

꿈길에 나타나 호통 치신 아버지

이번 UAE 사업을 위해 한전의 담당 변준연 본부장은 UAE에 17번이나 방문, 설득 설명하느라 무척 고생했다. 그러나 80년대 초 프랑스의 레브라똥 씨는 나에게 백세번째 한국 방문인데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푸념했을 정도였으니 그는 아마 원전 수출을 위해 130번 이상 한국에 왔을 것이다.

사실 프랑스 측은 5, 6호기 내지는 7, 8호기까지 내다보고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올진 1, 2호기를 공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C-E사의 기술 자료를 참고해 한국표준형경수로를 개발, 기술을 자립함으로써 그것으로 프랑스와 미국 회사의 한국 진출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독자 기술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노형이 한국표준형경수로(KSNP, 지금 OPR1000)이며 KEDO는 그것을 북한 신포지구에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동의 어느 유력인사의 말. “나의 조부는 낙타 타고 다니셨고 아버님은 자동차를,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닌다. 내 아들은 로켓으로 한 시간 안에 미국에 가게 되겠지만 손자는 아마 낙타 타고 여행해야 할 것이다. 왜? 석유가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석유 부국의 뜻있는 인사들은, 원유는 가급적 석유화학 공업 원료로 돌리고 에너지는 깨끗하고 싼 원전으로 충당하자는 원대한 계획을 갖게 되었는데 그 선두 주자가 UAE다. 이 일을 위해 이번에

우리와 손잡기로 한 UAE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난 연말 UAE 원전 사업이 성사될 기미가 보이자 나는 며칠간 잠 못 이루는 고민을 했다.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면 일주일 안에 몇 억원을 쉽게 벌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정보를 한수원에서 얻진 않았으나 그렇다 해도 내가 한수원 정책자문위원이니 가장 깨끗한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수원 김종신 사장에게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또 배고픈 놈이다, ...돈이나 의리냐로 고민하던 어느 날 밤 비몽사몽간에 아버님이 나타나 “안돼!”라며 호통 치신 것이다. 내 아들딸과 조카들은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이다. 감사하다.

“Complacence하지 말고 Complaissance할 것”

지난 연말 원전 핵심 기술 개발에 앞장섰던 40여명의 전·현직 원자력연구소 박사들이 UAE 원전 수주 자축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 호텔 음식점 사장이 나타나 이번의 쾌거를 온 국민이 축하한다더니 그날 밥값을 자기가 냈다.

나는 원전 수출 발표 다음부터 여러 군데에서 초대받았고 또 나의 치과의사는 원자력 인사이말로 애국자들이라며 치료비를 안 받으니 나는 후배들 덕택에 뜻밖에 신분이 상승되고 후한 대접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원자력계는 Complacence(자만)하지 말고 같은 발음인 Complaissance(공손, 겸손)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이다.

이번 일이 있자 춘원 이광수가 상해 임시정부 때 쓴 글이 떠올랐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의 경지를 넘어 남들에게서 존경받는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글귀다.

춘원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교정하면서 그 표현을 삽입했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하고 싶다.

“남들이 우러러 보고 항시 새로운 가치 창조에 앞장서는 깨끗한 문화대국을, 무궁화가 만발한 금수강산을...”